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여

8.15 의미와 독립운동 8.15 저격사건

금년이 광복절 75주년이 됩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 우리 모두 마음에 새깁시다.

8월 15일이 광복절인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8월 15일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날을 광복절이라고 해요.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오게 된 날이에요.

이때 독립운동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친일파**'가 있는데 일본의 앞잡이로 친일파가 된다고 하면 일본에서 승진 및 부유한 삶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상위층의 몇은 예전 친일파의 후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는 만세 운동을 하다 일본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체포된 후 심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펼쳤지만 꽃다운 19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일왕의 생일 기념식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대장 등을 즉사시키는 거사를 치르고 그 자리에 체포돼 25세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삼흥학교를 세웠고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이등 방문)**를 사살해 감옥에 수감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감옥에서 '**동양평화론**' 등 집필하며 많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독립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합시다.

8.15 저격사건

요약: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제29주년 기념식에서 재일교포 2세인 **문세광**이 **박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한 사건.

개설 :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는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주년 광복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는 순간 재일교포 2세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했다.

문세광의 발포로 인해 귀빈석에 앉아 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식장에 참석한 여학생 **장봉화 양**도 총탄에 희생되었다.

역사적 배경과 경과

문세광은 경상남도가 본적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다.

문세광은 오사카 재인한국인 거류민단에 가입했지만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서적에 심취했다고 조사되었다.

문세광은 1972년 <조총련>에 포섭돼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구출대책위원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건 당일 아침 **문세광**은 조간신문을 탐독해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광복절 기념식장을 확인했고, 미제 38구경 권총에 실탄 5발을 장전하여 조신히 호텔을 나섰다.

이후 10시 3분 경 **문세광**은 입장이 허가된 비표도 없었지만 일본어를 구사하며 **VIP**로 행세해 별다른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남측 후문을 통해 식당 내에 입장하는 데 성공했다.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를 읽는 동안 총 5발을 발사했다.

문세광은 현장에서 경호원과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육영수 여사**는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 끝내 사망했다.

조사에 착수한 조사당국은 **문세광**의 배후로 <조총련>과 조총련 산하 <한국청년동맹>을 지목했고, 특히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8월 24일 **문세광**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내란목적살인, 일반살인,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단속법, 여권법, 문서위조> 등 13가지 죄목으로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되었다.

이어 **문세광**은 9월 12일 내란목적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6개 죄목으로 기소돼,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4년 8월 19일 **육영수 여사** 장례식에 **다나카 일본 총리**가 조문사절로 참석했지만 그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과 **문세광** 수사에 대해 다른 시각을 표출했다.

일본 측은 **문세광**이 <김대중 납치사건>에 분개, **박정희**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를 12월 25일 발표했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배후나 공범 2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부정했다.

일본은 조총련과 특히 북한 배후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정부가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후 이를 역전시키는 한편 박정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작극을 꾸몄다는 의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만약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교단절, 대사소환까지 포함한 정치·경제상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한편 9월 6일 광복회원 200명으로 구성된 서울의 시위대가 주한일본대사관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한일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

의의와 평가

<박정희 정권>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들끓었던 국민의 <김일성 정권>에 대한 공분을 적절히 결집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그동안 궁지에 몰려 있던 정권의 '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고 유신체제를 공고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상은 현재까지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문세광

문세광은 23살 재일교포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4발의 총알을 발사하였습니다.

문세광은 이 사건으로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려 민주화가 되길 바랐고 또 자신이 영웅이 될 건이라 생각해 저격사건을 벌였습니다.

문세광의 마지막 유언에서 "나는 바보였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달라. 국민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달라. 육 여사와 죽은 여학생의 명복을 저승에 가서도 빌겠다. 아이쓰라(저놈들)에 속아서 이런 과오를 범한 나는 바보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고문헌

- 『김형욱회고록』 (김형욱·박사월, 아침, 1985)
- 「김대중 납치사건과 박정희 저격사건」 (이완범, 『역사비평』 80호, 2007)